

일본의 대한(對韓)투자 현황과 새로운 추세*

이숙중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최근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오히려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의 빠른 회복과 1998년도에 집중적으로 취해진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대한투자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대아시아 투자가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것과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다.

일본의 대한투자는 90년대 중반에 축소 추세에 있었는데 1998년도부터 회복세로 돌아서 최근 2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 제조업 부문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화공, 전기·전자, 기계, 금속업 등이 주요 투자업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의 대한투자 증대는 자산가치가 하락한 한국기업을 사들이는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가고 있고, 한일투자협정과 한일자유무역지대 등 경제협력이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소비시장으로서 또한 제조업 중간재 생산지로서의 한국의 매력은 크다. 특히 한국과 일본 제조업체들의 과잉생산능력이 모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기술력이 가장 근접해 있어, 수평적 생산분업화의 의미에서 대한투자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1. 서론

외국인직접투자¹⁾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시각이 있었다. 하나는 개도국에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여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도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투자이득을 국외로 유출시켜 궁극적으로 국내자본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는 부정적인 것이다. 20세기말부터 급속화 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는 국내자본과 국외자

* 이 글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과 일본의 카나가와대학의 국제교류센터가 2000년 5월 25-26일 양일간 공동주최한 “새 천년의 한일관계”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1)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유입(inflow)개념의, 해외직접투자는 외국으로 투자되는 유출(outflow) 개념의 세계 직접투자를 의미한다.

본의 구분을 불명확하게 만들면서 이상과 같은 상반된 시각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다.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문제는 어떻게 해외투자를 유치하느냐로 귀결되었으며, 나라간 국제자본의 투자유치는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UNCTAD 보고서에 의하면, 1998년 한해 동안의 세계 직접투자는 지난 1987년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 1997년의 4,640억 달러에서 1998년에는 6,440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1998년 기준 전세계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약 4조 달러를 넘고 있다. 세계 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급격한 기술의 발전, 무역 및 투자자유화 확대 및 규제완화, 국경간 M&A의 증대, 기업간 경쟁 격화에 따른 생산 및 판매의 해외거점 확대전략 등의 요인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국경간 M&A는 세계 직접투자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998년 국경간 M&A는 전년대비 74%가 신장되어 전세계 직접투자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해외직접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은 6만개사, 이들이 갖고 있는 해외 자회사는 약 50만개사에 이르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국제생산 확대는 국제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추세에 따라 자본 및 기술 등의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며, 상품의 무국적화를 촉진하고 있다.

특히 개도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1990년대 들어 크게 증대되었다. 예를 들어 1980년만 하여도 개도국으로 자본유입에 있어 외채가 79%, 공여금 15.7%, 외국인직접투자는 5.3%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96년(1997년)에 외채와 공여금은 각각 31.1%(40.8%)와 10.4%(8.4%)로 줄어든 반면에 외국인직접투자는 42.3%(40.1%), 포트폴리오투자²⁾는 16.3%(10.8%)로 늘어났다.³⁾ 이는 개도국들이 개발원조금이나 해외차입보다 직접투자 형태로 자본을 조달하기 시작하였으며, 선진국들도 현지의 생산요소들을 이용, 제품을 생산, 판매하기 시작한 것을 반영한다.

이상과 같은 세계 직접투자 활성화에 기여한 것은 세계 여러나라의 투자환경 개선이다.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서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자유화 조치는 90년대 들어 가속화되었으며, 각국 정부가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체결한 양자간 투자협정 건수도 90년대 초반 400건 미만에서 97년 말에는 1,513건으로 늘어났

2) 외국인직접투자를 포트폴리오 투자(portfolio investment)와 구별할 경우, 후자는 배당 내지는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기업의 경영과 관리에의 참여를 통해 이윤증대는 물론 경영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투자로 간주한다. 한국을 비롯하여 대다수의 국가는 외국인투자자 1인이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 또는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할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자로 간주하고 있다.

3) World Bank. 1998. *Global Development Finance*.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8)에서 재인용.

다. 비록 다자간투자협정인 MAI 협상이 좌초되었지만 양자간투자협정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외국인직접투자 증대는 국제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시아의 외환위기는 이러한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는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외환위기를 맞은 아시아 국가들은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규제들을 대폭 개방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외자유치에 소극적이었던 한국의 경우, 이러한 대응은 특기할 만하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빠른 경제회복으로 환란국가들 가운데 외국인투자가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지역이다.

본 연구는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최근 현황을 특히, 일본의 대한투자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먼저, 비교의 관점을 위해 먼저 세계와 일본으로부터 아시아로의 투자 현황을 살펴 본다. 다음으로는 세계로부터의 대한투자를 일본의 대한투자 추이와 비교해 보면서 외환위기 이후 일본의 대한투자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일본의 대(對)아시아 직접투자 현황

1. 외환위기 이후 세계의 대아시아 투자⁴⁾ 위축

1998년도의 전세계의 직접투자를 지역별로 보면, 선진국으로의 직접투자가 72%나 차지하는데 이는 특히 미국과 유럽간의 M&A 급증에 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반해 개도국으로의 유입 비중은 1997년(1996년)의 37.2%(37.7%)에서 1998년에 25.8%로 낮아졌다. 특히 개도국으로의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아시아 개도국으로의 투자는 세계 외국인직접투자의 5분의 1 이상(1995년 20.7%, 1996년 22.9%, 1997년 20.6%)을 차지하다가 1998년에 13.2%로 줄어 들었다. 이는 아시아 개도국 특히, 인도네시아, 대만, 홍콩의 투자유입 감소에 따른 것이다.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1998년도의 특히 ASEAN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1997년 대비 26%가 감소한 130억 달러(아시아 개도국으로의 총 외국인투자의 17%)로 줄어들었다. 4개 아시아 신흥공업국(한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으로의 투자액도 1998년도에는 1997년의 163억 달러에서 11%가 줄어든 145억 달러(아시아 개도국으로의

4) 대아시아 투자에 관한 다음의 내용은 박영호(1999)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

총 외국인투자의 18.7%)를 기록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투자유치 경쟁국인 중국으로의 1998년도 직접투자 유입액은 1997년보다 다소 늘어 난 455억 달러로 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액의 58%를 차지하였다. 외환위기 5개국들(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로의 직접투자는 1997년도보다 8.5%가 줄어들어 1998년도에 16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외환위기 5개국들로 직접투자 감소율이 아시아 신흥공업 4개국과 ASEAN 5개국들로의 직접투자 감소율보다 오히려 낮은 것은 외환위기 국가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태국으로의 직접투자는 전년대비 거의 2배나 증가한 반면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대폭적으로 감소되었다. 외환위기국들의 국내자산 가치의 하락과 투자환경의 개선, 대대적인 기업구조조정 등은 국경간 M&A를 전년대비 12% 증가한 138억 달러를 기록해, 1998년도 이들 외환위기 5개국 직접투자 유입의 57%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감소를 상대적으로 많이 본 지역은 ASEAN 국가들이며, 다음으로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다소 감소를, 중국은 피해를 전혀 입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 국가들이라고 모두 피해를 본 것은 아니며 한국과 태국은 오히려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 타격을 크게 받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와 대조된다. 또한, 외환위기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시아 국가들로의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한 것은 대아시아 투자의 위험도(risk-taking)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표1> 아시아지역의 그룹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현황 (단위: 10억 달러)

연도	중국	NIEs	ASEAN5국	남아시아	LDCs	외환위기국
1991-95	22.5	9.4	10.8	1.3	0.3	10.8
1996	40.2	14.1	17.3	3.5	0.6	17.5
1997	45.3	16.3	17.5	4.5	0.5	17.6
1998	45.5	14.5	13	4.3	0.4	16.1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9; 박영호(1999), p. 76에서 재인용.

2. 외환위기 이후 일본의 대아시아 투자 위축

일본은 아시아에 있어 제1의 투자국이다. 다음의 최근 통계들을 살펴보면, 아시아의 외환위기는 세계 다른 투자국가들에 비하여 일본에게 더 큰 위축감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1973년을 정점으로 하는 70년대 전반, 1981년을 정점으로 하는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 1989년을 정점으로 하는 80년대 후반 등의 세시기를 거치면서 급속히 증가해 왔다. 80년대 중반부터 일본은 미국과 영국을 이어 세계 직접투자 3대국이 되었으며, 1989-91년 동안은 세계 제1의 투

자국이 되었다. 그러나 80년대 말 거품경기가 터지고 1992년부터 장기 침체에 들어가면서 1991년에 416억 달러에 이르던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액은 1992년에 341억 달러, 1993년에 36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⁵⁾ 9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가 추세에 있었는데, 90년대 하반기부터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아시아 외환위기에 의해 가속화되었는데,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위기가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1997년도에서 해를 넘기면서 1998년도부터 일본의 투자 감소가 두드러지게 된다.

1997 회계연도에 540억 달러에 이르던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1998 회계연도에 407억 달러로 급감하였다. 여기에는 아시아 외환위기 효과만이 아니라 미국으로의 직접투자가 크게 감소한 요인도 있었다. 일본의 동아시아에 대한 직접투자는 1998년 전년대비 무려 44.4%나 감소하였다. <표2>에서 보면, 최근 수년간 일본의 대아시아 투자는 다음 몇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는 96년도부터 일본의 대중국 투자가 축소되기 시작한 점이다. 둘째는 1997년도에 홍콩에 대한 투자가 급감한 점이다. 셋째는 98년도에 외환위기를 겪었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한국, 태국 등으로의 일본의 직접투자가 4분의 1에서 절반까지 크게 감소한 점이다. 외환위기 이후 이들 환란국가들의 악화된 경제상태가 일본의 투자동기를 크게 위축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싱가포르나 타이완에 대해서도 투자가 크게 줄어 든 점으로 보아 일본의 대아시아 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을 알 수 있다.

1998년도 일본의 대아시아 투자는 제조업이 37억 달러, 비제조업이 27억 달러였는데, 전년 대비 감소율이 각각 -49.5%와 -40.8%로 별 차이가 없었다. 제조업 분야의 대아시아 투자에 있어서는 특히 전기기계(-63.3%)와 화학(-55.1%), 기계(-46.1%) 산업에서 투자가 격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제조업 분야 가운데는 수산업(-96.1%), 부동산업(-85.1%), 광산업(-71.7%) 등이 두드러지게 위축된 분야이다.

그러나, 일본은 1999 회계연도에 다시 활발한 해외직접투자를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JETRO 2000년 백서는 1999 회계연도 전반기인 4-9월까지의 통계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1999 회계연도 전반기 동안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177%가 증가한 464.9억 달러로 치솟아 1998 회계연도 총액인 407억 달러를 앞질렀다. 1999 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총액을 알기 위해서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2000년 3월까지의 통계가 집계되어야 하므로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99 회계연도 전반기에 이미 1998 회계연도 총액을 앞지른 것으로 보아 외환위기 이후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은 쉽게

5) 이숙중, 1997. 「일본과 동아시아 경제협력」. 『동아시아협력의 정치경제』. 세종연구소, 참조.

예측할 수 있다.

<표2> 최근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액과 증감률 (단위: 백만 달러, %)

	FY1995	FY1996	FY1997	FY1998	FY1995	FY1996	FY1997	FY1998
세계	50,694	48,109	53,972	40,747	23.5	-5.3	12.4	-24.5
북미	22,761	23,021	21,389	10,943	27.7	1.1	-7.1	-48.8
유럽	8,470	7,372	11,204	14,010	36.0	-13.0	52.0	25.0
아시아	12,264	11,614	12,181	6,528	26.4	-5.3	4.9	-46.4
동아시아	11,763	10,997	11,094	6,169	26.3	-6.5	0.9	-44.4
NIEs	3,179	3,538	3,411	1,765	11.0	11.3	-3.6	-48.3
한국	445	416	442	303	11.4	-6.6	6.4	-31.6
타이완	457	521	450	224	64.5	14.1	-13.7	-50.2
홍콩	1,125	1,487	695	602	-0.7	32.1	-53.2	-13.4
싱가포르	1,152	1,115	1,824	636	9.3	-3.2	63.5	-65.1
ASEAN4	4,110	4,949	5,696	3,340	5.7	20.4	15.1	-41.4
말레이시아	573	572	791	514	-22.8	-0.2	38.4	-35.0
타일랜드	1,224	1,403	1,867	1,371	70.1	14.7	33.1	-26.6
인도네시아	1,596	2,414	2,514	1,076	-9.3	51.3	4.1	-57.2
필리핀	718	559	524	379	7.5	-22.1	-6.3	-27.7
중국	4,473	2,510	1,987	1,065	74.4	-43.9	-20.8	-46.4

자료: JETRO, *Japanese White Paper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2000*

3. 일본의 대아시아 투자 장기 전망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기에 있어서, 선진국 투자가 무역장벽이나 마찰을 회피하기 위한 '시장입지 지향형'이었다면, 아시아 투자는 엔고에 따른 생산활동 비용감소를 위한 '기업기능 분업형'이었다. 일본의 대아시아 투자는 국내의 산업구조 조정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산업화 드라이브와 연계되면서 8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된 것으로, 제조업부문의 아시아 역내 생산체제의 분업화라는 의미를 지니었다.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아시아에서 신규 일본 현지법인의 설립수는 1991-92년과 1996-97년의 두차례 감소추이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아시아는 일본의 해외투자의 매력적인 곳으로 여겨져 특히 1993년도부터는 북미와 유럽에 진출하는 일본계 현지법인수의 2-3배를 차지하게 되었다. <표2>에서 보았듯이 일본의 대아시아 투자액이 대북미 투자액보다 적은데도 현지법인이 설립수에 있어서는 아시아가 북미 쪽보다 많았다는 점은 일본의 대아시아 건당 투자가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표3> 지역별 일본 현지법인 신규 진출 건수

지역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북미	263	280	215	138	126	107	114	137	144	107
아시아	364	357	389	263	313	406	586	754	462	286
중국	37	32	32	57	105	208	278	353	143	79
ASEAN ⁴	167	180	189	100	88	76	157	216	151	94
NIEs ⁴	157	141	160	101	111	112	126	142	113	89
유럽	152	203	223	188	128	95	99	114	106	64

자료: 通商産業省, 「第28回 海外事業活動動向調査」.(1999년 5월 18일 공표);
<http://www/miti.go.jp/stat-j/h2c400aj.html>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제조업 분야의 설비투자 비중에 있어서 만큼은 80년대 중반이래 아시아에 대한 설비투자액이 가장 컸다. 최근에는 북미에 진출한 일본의 제조업 현지법인들의 설비투자가 증대해 1997년의 일본계 제조업 현지법인들의 총 설비투자액에 있어 아시아계가 42.2%, 북미계가 40.7%로 북미계가 아시아계를 따라잡기 시작하였다. 아시아를 대부분 구성하는 3국인 중국, ASEAN 4개국과 신흥공업국을 보면 80년대 후반에 신규 진출이 가장 활발하던 지역은 ASEAN 4개국이었으나 1992년을 기점으로 중국으로 옮겨졌다. 제조업 분야에 있어, 아시아의 일본 현지법인들의 매상고 경상이익률은 80년대 후반에는 일본 국내기업과 비슷하였으나 90년 들어 국내기업들의 매상고 경상이익률이 2-3% 사이로 떨어진 것에 비하여 1997년 이전까지 4% 이상의 경상이익률을 올렸다. 이는 유럽이나 북미로 진출한 일본 현지법인들의 경상이익률보다 훨씬 높은 것이었다. 그러나, 1997년을 맞아 아시아에 진출한 일본 현지법인들의 경상이익률은 2.0%로 떨어져 국내기업의 3.3%는 물론 북미 2.7%와 유럽의 2.3%보다 낮아져 버렸다.⁶⁾

북미로 진출한 일본의 제조업체들이 아시아로 진출한 일본의 제조업체들을 설비투자 면에 있어 따라잡기 시작하였고, 최근 아시아계 일본 제조업체들의 경상이익률 하락은 일본의 대아시아 투자의 적신호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 일본 제조업체들의 현지 생산 형태를 보면 아시아계 일본 제조업체들이 일본의 해외생산지로 거점화하고 있는 추세는 일관적인 것으로 보인다.

1986년도부터 본격화된 일본기업의 아시아 진출은 해외생산 비율의 꾸준한 증가로 나타났다. 1985년에 불과 3%에 불과하던 일본의 해외생산 비율은 1997년에 12.4%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는 여전히 미국이나 독일의 해외생산 비율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것이지만, 일본의 산업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지난 십수년간 일본의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여 해외생산 비율을 꾸준히 증가시

6) 大藏省, 1999. 『國內法人: 法人企業統計』.

켜 온 결과이다. 특히 아시아로의 일본기업들의 진출은 일본과 아시아의 제조업 생산의 분업화를 의미하는 바, 일본으로의 역수입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표4>를 보면, 일본의 해외 제조업체들은 97년도에 총 매상고의 10.4%를 모국인 일본으로 수출하여 일본의 총 수입액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북미계나 유럽계의 일본 제조업체들이 일본에 다시 수출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계 일본 제조업체들의 대일 수출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1997년도에 25.2%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가 일본 제조업부문의 완성품과 부품, 반제품 등의 생산거점화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표4> 일본 해외 제조업 현지법인으로부터의 역수입 현황 (단위: 천억엔, %)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전지역	793 (7.5)	772 (6.2)	925 (5.5)	1,293 (6.0)	1,308 (5.2)	1,557 (6.4)	1,516 (6.4)	2,024 (7.5)	2,585 (8.1)	2,665 (7.7)	4,053 (9.0)	5,182 (10.4)
북미	214 (4.9)	94 (1.7)	163 (2.3)	315 (2.7)	281 (2.6)	284 (2.7)	192 (2.0)	334 (3.0)	407 (3.3)	295 (2.1)	375 (2.2)	426 (2.1)
아시아	517 (16.4)	620 (15.7)	650 (12.1)	815 (16.4)	896 (12.0)	1,123 (14.5)	1,200 (16.7)	1,414 (16.3)	1,847 (16.2)	2,158 (18.5)	3,392 (20.9)	4,365 (25.2)
유럽	20 (1.2)	21 (1.1)	46 (1.6)	45 (1.5)	66 (1.3)	71 (1.6)	48 (0.9)	168 (3.2)	225 (3.5)	97 (1.4)	175 (2.0)	243 (2.6)
총수입액 대비 %	4.5	4.0	4.2	4.6	4.2	5.9	5.8	8.7	10.2	9.1	11.2	14.3

※ 참고: 석유석탄, 목재제지, 식료품은 제외함. 괄호안의 역수입율은 해당 지역에 진출한 일본 현지법인 제조업체로부터 일본으로의 총수출액을 이들의 전 매상고로 나눈 백분률이다. 총수입액 대비 백분률은 일본의 총수입액에서 이들 해당 지역의 일본 현지법인들로부터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자료: 通商産業省, 「第28回 海外事業活動動向調査」(1999년 5월 18일 공표);
<http://www.miti.go.jp/stat-j/h2c400aj.html>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아시아에 진출한 일본 제조업체들은 1/4 가량을 일본에 수출하고, 66.6%(51.4% 현지판매+15.2% 역내판매)를 아시아내로 판매하고 있다. 반면에 북미에 진출한 일본 제조업체들은 매상고의 92.5%(86.6% 현지판매 + 5.9% 역내판매)를 북미내부로 판매하고 있다. 유럽으로 진출한 일본 제조업체들은 91.9%(현지판매 63.8% + 28.1% 역내판매)를 유럽내부로 판매하고 있다. 즉, 북미나 유럽이 이들 지역의 시장을 겨냥한 최종 소비자의 역할을 하는 반면에 아시아는 일본의 생산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⁷⁾

일본의 대아시아 투자는 아시아 국가들의 지속적 성장과 일본 국내 산업구

조조정에 계속 필요한 것이다. 외환위기로 대아시아 투자가 최근 위축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아시아 역내 생산체제의 분업화라는 장기추세에 있어 일시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개선 조치들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지역의 경제 회복과 향후 성장 전망이 어둡지 않은 만큼, 일본의 대아시아 투자는 다시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Ⅲ. 한국내 외국인투자 동향

1. 세계의 대한 직접투자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아직 적은 편이나 최근 빠르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2-97년 중 한국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4%로 일본(0.02%)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나 이전부터 외자유치에 적극적이었던 싱가포르(8.78%)나 말레이시아(6.86%)는 물론, 중국(4.57%), 멕시코(2.1%), 영국(1.8%), 인도네시아(1.5%), 대만(0.8%), 미국(0.7%) 등 보다 낮은 편이었다. 토지, 건물, 기계 등 국내 총고정자본 형성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도 1992-97년 사이에 연평균 0.9%에 불과하여 세계 최대의 자본수출국인 일본(0.1%)을 제외하고는, 싱가포르(25.4%), 말레이시아(18.1%), 중국(13.0%), 멕시코(11.9%), 영국(11.6%), 인도네시아(4.6%), 미국(4.4%), 대만(3.5%) 등 보다 훨씬 낮았다.⁸⁾

그러나, 최근 한국으로 외국인직접투자는 눈에 띄이게 증가하고 있다. 1995-98년간 외국인투자 신고건수는 월 평균 100건에 그쳤으나, 1999년부터 대폭 증가하여 99년 10월부터는 4개월 연속으로 월간 투자건수가 200건을 초과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 1월에는 사상 최초로 300건을 넘는 302건을 기록하였다. 외국인투자 액수로 보면, 총 외국인투자액은 90년대에 계속 늘어났는데 특히 90년대 중반인 1995년, 1996년, 1997년이 신장율이 괄목할 만하다.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은 신장율이 27%에 그쳤으나 1999년도의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전년 대비 76%가 증가한 155억 4천만 달러를 기록, 정부 목표치인 150억 달러를 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7) 일본의 제조업 해외 현지법인들은, 특히 북미계 일본 제조업체들의 경우, 현지로부터의 원자재 및 부품 조달을 증대시켜와 최근 북미계와 아시아계 모두 일본으로부터의 조달 비율은 4할 가량이며, 6할을 현지에서 조달하고 있다.

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 외국인투자」. pp. 18-19.

<표 5> 한국으로의 외국인투자액 (단위: 백만 달러)

연 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1
금 액	895	1,044	1,317	1,941	3,203	6,971	8,852	15,541	1,121
(증감율)	-	(16.7)	(26.1)	(47.4)	(65.0)	(117.6)	(27.0)	(75.6)	(15.9)

자료: 재정경제부, 1999. 『국제투자 및 기술도입 동향』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동향』, 각월호.

최근 외국인투자 현황을 투자규모별로 보면 5백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투자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6>에서 보이듯이, 중소기업 외국인투자가 투자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억불 이상의 대규모 외국인투자가 발생함으로써 오히려 축소되었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투자건수에서 중소기업 투자의 증가 추세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대규모 소수 투자에서 전기, 전자, 인터넷 등 정보통신분야로의 중소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6> 각 연도 1월중 투자규모별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괄호안은 %)

구분	98년 1월		99년 1월		2000년 1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억불 이상	-	-	2 (1.5)	571 (59.0)	2 (0.7)	910 (81.2)
1천만불-1억불	2 (2.3)	17 (13.1)	11 (8.4)	305 (31.5)	4 (1.3)	67 (6.0)
5백만불-1천만불	4 (4.7)	76 (58.5)	5 (3.8)	37 (3.8)	8 (2.6)	54 (4.8)
5백만불 미만	80 (93.0)	37 (28.5)	113 (86.3)	54 (5.6)	288 (95.4)	90 (8.0)
합계	86 (100)	130 (100)	131 (100)	967 (100)	302 (100)	1,121(100)

자료: 외교통상부, 2000년 1월중 외국인투자 동향.

투자유형별로는 신규법인 설립이나 증자참여 등에 신주 취득을 위한 투자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1997년도 외국인투자의 89.1%가, 1998년도 외국인투자의 73.8%가 신주 취득이었으며, 기존의 주식을 사들인 경우는 각각 10.0%와 14.0%에 그쳤다. 장기차관의 경우는 97년 0.9%에 불과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98년도에는 12.2%로 늘어났다.

<표7>에서와 같이, 한국은행 국제수지 계정에서 나타난 외국인투자를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직접투자(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한 경우)와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주식의 10% 이하를 취득한 경우)로 구분해 보면, 투기적 성격이 짙은 외국인 증권투자는 1997년 59억 4,600만 달러에서 1998년 40억 9,800만 달러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외국인직접투자는 최근 증가하여 1999년 1-5월 기준으로 1997년과 1998년 동기간의 2배 가량인 23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외

국민 증권투자와 직접투자의 비율이 1997년 5.1에서 1998년 4.9, 99년에는 1.8로 약 1/3로 줄어 들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를 불러왔던 단기차입 비중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을 늘리려는 외자유치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표7>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증권투자

	직접투자(A)	증권투자(B)	B/A
1997 1-5	1,163.8	5,946.2	5.1
1998 1-5	1,190.1	5,777.0	4.9
1999 1-5	2,300.2	4,097.5	1.8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계정」; 배상근(1999), p. 67에서 재인용.

<표8>의 1962년부터 1999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의 누계 현황을 보면, 제1의 대한 투자국은 미국으로서 총 149억 9,251 달러를 투자하였다. 일본의 누계 대한 투자액은 80억 8,560 달러로 제2의 투자국이다.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의 추세를 보면, 미국의 경우 1997년 대비 1998년 투자액은 감소하였다가 1999년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EU와 일본의 경우는 절대 투자액이 외환위기와 상관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99년도의 대한 투자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EU는 2배 이상, 일본은 3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의 강한 회복세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완화와 한국 기업들이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외자유치에 적극 나선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단, <표8>을 <표2>와 비교할 때, 일본측 자료에 나타난 일본의 대한투자액이 한국측 자료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표8>의 한국측 자료에 의하면, 1998년도 일본의 대한투자는 5억 400만 달러로 일본측 자료인 1998 회계연도 3억 300만 달러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는 우선 한국측 자료가 1998년도 1월에서 12월 회계연도이고 일본측 자료가 1998년도 4월에서 1999년도 3월까지의 수치들에 근거한 데서 비롯될 것이나, 한국과 일본 모두 자국 정부에 신고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상호 누락된 건수가 있을 수 있는 점, 1996년부터 엔화로 집계되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액이 달러로 환산되는 과정에서 환율요인이 들어갔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8> 한국으로의 투자국가별 외국인투자 (단위: 백만 달러, %)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1	누계 '62-00.1
미국	645 (33.2)	876 (27.3)	3,190 (45.8)	2,975 (33.6)	3,746 (24.1)	66 (5.9)	15,060 (30.0)
EU	462 (23.8)	892 (27.8)	2,305 (33.1)	2,889 (32.6)	6,259 (40.3)	26 (2.3)	15,497 (30.9)
일본	418 (21.5)	255 (8.0)	266 (3.8)	504 (5.7)	1,750 (11.3)	165 (14.7)	8,251 (16.5)
전세계 합계	1,941 (100)	3,203 (100)	6,971 (100)	8,852 (100)	15,541 (100)	1,121 (100)	50,154 (100)

자료: 외교통상부, 2000년 1월중 외국인투자 동향.

산업별로 대한 외국인투자 현황을 보면, 1962년부터 2000년 1월까지의 누계액에 있어서는 제조업이 53.2%와 서비스업이 46.1%로 제조업이 다소 많은 편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 비중을 90년대에 살펴보면 이들 제조업 투자와 서비스업 투자가 상호 상쇄하면서 매해 지그재그 패턴을 그리면서 변화가 심하다. 즉, 어떤 해에 제조업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많아 서비스업 투자비중이 줄어들면 다음 해에는 서비스 투자액이 증대해 제조업 투자비중이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부문 대한투자 절대액은 1995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서비스업 대한투자는 90년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업 투자 증대는 한국의 국민소득이 커지면서 소비시장으로서의 한국시장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9> 세계의 산업별 대한 직접투자 (단위: 건, 백만 달러)

투자부문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1	누계 '62-00. 1
농축수산 광업	건수	1	1	1	2	2	8	9	12	3	214
	금액	2.2	0.1	0.3	0.4	18.2	55.2	179.0	54	1	349
	(%)	(0.2)	(0.1)	(0.1)	(0.1)	(0.6)	(0.8)	(2.0)	(0.3)	(0.09)	(0.7)
제조업	건수	82	80	136	195	196	186	266	594	50	7550
	금액	648.0	526.8	401.7	883.5	1930.2	2347.9	5735.3	7130.0	866	26689
	(%)	(72.5)	(50.4)	(30.5)	(45.5)	(60.3)	(33.7)	(64.8)	(45.8)	(77.3)	(53.2)
서비스업	건수	150	192	277	359	398	444	522	1480	249	6315
	금액	244.3	517.3	914.5	1057.5	1254.3	4567.8	2938.0	8357.0	254	23116
	(%)	(27.3)	(49.5)	(69.4)	(54.5)	(39.1)	(65.5)	(33.2)	(53.8)	(22.7)	(46.1)
합계	건수	233	273	414	556	596	638	797	2086	302	14079
	금액	894.5	1044.3	1316.5	1941.4	3202.6	6970.9	8852.4	15541	1121	50154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재정경제부, 「국제투자 및 기술도입 동향」, 1999.3.31; Korea Investment Service(www.kisc.org) 및 재정경제부(www.mofe.go.kr) 인터넷 자료 등에서 작성.

2.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는 외환위기의 충격을 비교적 덜 받았으며, 위기이후 회복세 역시 매우 빠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앞서 살펴 보았던 <표2>에 의하면, 일본의 대한투자는 일본의 1995-97 회계연도 사이에 4억 4,500만 달러, 4억 1,600만 달러, 4억 4,2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가 1998 회계연도에 3억 300만 달러로 약 1/3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 감소폭은 다른 환란국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폭이다.

1999년도에 들어서 일본의 대한투자가 대폭 증대되고 있는데, 이 추세 역시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의 일본의 직접투자가 회복세로 돌아서지 못한 점과 대조된다. 「JTRO 백서 2000」에 나타난 ASEAN 5개국과 한국의 공식자료에 근거한 1998년도와 1999년 1-9월 통계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에 일본의 직접투자가 전년대비 증가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일랜드로의 일본의 직접투자 감소는 98년도에는 전년대비 -58.5%, 99년도 1-9월에는 -30.2%였으며,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각 기간에 -13.7%와 -44.4%,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75.5%와 -62.4%, 필리핀의 경우는 -25.2%와 -38.8%, 싱가포르의 경우는 -10.3%와 -17.9%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으로의 일본의 대한투자는 같은

기간에 각각 89.1%와 127.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1998년도 한국의 공식자료에 근거한 이 수치는 일본의 1998년 회계연도의 대한 투자 감소 -31.6%와 대치되므로 앞서 지적된 요인에 의한 통계불일치를 전제로 한다.

일본의 대한투자를 산업별로 보면, 다음 몇가지 특성을 갖는다.

첫째, 1962년부터 1999년까지 누계액에서 볼 때, 제조업 투자는 53.1%이고 서비스업 투자는 46.5%로 <표9>에 나타난 세계 대한 직접투자 투자패턴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의 추세에 있어서, 일본의 대한투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제조업부문으로의 직접투자 신장율이 더 빠르다는 점이다. 특히 1999년도 일본의 한국 제조업부문으로의 투자는 전년대비 4배 이상이 늘어났다.

둘째, 지난 37년간의 제조업 투자 누계액에 있어서는 전기·전자업이 27.4%로 가장 일본의 투자가 활발했었으며, 그 다음으로 화공(21.3%), 기계(12.3%), 운송용기기(11.9%)가 주요 제조업 투자 산업들이었다. 최근 추세를 보면, 97년도에는 화공업이 일본의 총 대한 제조업 투자의 24.4%를 차지하였고(다음으로 운송용기기에 7.8%), 98년도에는 역시 화공업에 일본의 총 제조업 투자의 34.2%, 기계산업에 28.5%, 전기·전자에 14.5%, 운송용기기에 11.7%가 투자되었다.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된 1999년도 투자에 있어서는 전기·전자로의 일본 투자가 급증해 당해년도 총 일본의 제조업 투자의 37.5%를 차지하였으며, 금속업이 새롭게 투자산업으로 부상하여 20%를, 그리고 종래 강력한 투자업종인 화공이 19.9%를 차지하였다.

셋째, 서비스업의 경우 지난 37년간 누계액을 보면, 일본의 대한 서비스 투자의 57.5%가 숙박업이었으며, 다음으로 금융업(10.6%), 운수창고업(7.6%), 무역업(6.1%)이 주요 투자업종이었다. 최근 97-99년간의 추세를 보면 숙박업의 비중이 각각 38.5%, 14.1%, 20.8%로 떨어진 반면에, 운수창고업이 97년 4.2%에서 99년 41.1%로 급증하였다. 무역업으로의 투자는 지난 3년간 일본의 대한 제조업 총투자의 22.5%에서 8.5%, 12.3%를 차지하면서, 금융업으로의 투자는 4.3%, 10.3%, 14.1%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일본의 주요 투자업종이었다.

<표10> 일본의 산업별 대한 직접투자

(단위: 1,000 달러)

산업구분	1997		1998		1999		1962-1999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축수산업	1	1,769	1	3,563	2	5,443	62	20,703
광업	-	-	-	-	1	332	40	12,082
제조업	51	116,422	64	273,815	92	1,108,475	2,303	4,296,287
식품	1	4,120	6	18,829	9	44,994	145	187,036
섬유 및 의류	1	1,200	5	190	5	16,940	203	289,106
제지 및 목재	-	-	1	592	1	6,417	41	28,220
화학	10	64,882	6	93,706	14	220,791	286	916,595
비료	-	-	1	240	-	-	4	7,533
의약	2	2,437	2	3,631	-	1,740	35	50,374
석유	-	23	-	891	1	27,000	5	39,531
요업	2	2,447	1	718	-	510	69	82,404
금속	2	920	2	1,077	5	221,420	163	364,495
기계	14	12,462	19	78,092	29	28,696	499	528,046
전기 및 전자	9	6,033	8	39,715	15	415,323	457	1,177,484
운송용기기	4	20,701	6	31,956	-	92,294	93	511,222
기타 제조업	6	1,197	7	4,178	13	32,350	303	114,241
서비스업	82	147,562	112	226,793	141	635,441	933	3,756,529
전기 및 가스	-	-	-	-	1	33,000	2	42,700
건설업	6	738	6	4,856	4	2,004	32	68,802
도소매업	13	9,844	14	4,876	22	13,835	90	51,877
무역업	25	33,186	45	19,247	48	78,421	303	230,388
음식점업	3	1,110	10	1,972	6	362	49	14,865
숙박업	2	56,864	2	31,992	5	132,126	80	2,161,509
운수 및 창고	3	6,208	1	350	2	251,003	30	286,873
금융업	1	6,368	2	23,364	5	89,499	46	397,482
보험업	-	-	-	-	-	-	1	4,712
부동산업	-	-	3	401	2	127	5	528
기타 서비스	29	33,244	29	139,735	46	35,064	295	496,793
합계	134	265,753	177	504,171	236	1,749,691	3,338	8,085,601

자료: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동향』, 매월 발행.

3. 한국의 최근 자유화 조치

최근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증대는 IMF관리 구조조정 이후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 가운데,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들의 신뢰가 제고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60년대 중반이래 초기 20여년간의 한국의 경제발전정책은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내포하고 있었다.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 필요한 해외자본을 정부주도 차관을 비롯하여 외채에 의존하여 왔다. 이는 과거 정부들이 민족주의적 중상주의 발전전략을 큰 틀로 하면서 ‘민족자본(대기업)’ 육성 전략을 추구하였기 때문이었다. 급속한 산업화 시기의 해외자본 유치정책은 국내 저임 노동력을 이용,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외자유치를 일부 ‘자유수출지대(free export-processing zone)’에 제한함으로써 한국에 있어 외국인직접투자는 오랜 기간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였다. 한국경제가 발전하면서 국내시장을 겨냥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장벽과 관습상의 장벽은 여전하였으며, 한국민의 외국자본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가시지 않았다. 동시에, 외국자본에게 있어서도 한국시장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의 임금이 높아지면서 임금경쟁력이 없어진데다가 국내 소비시장을 겨냥한 직접투자 역시 규제장벽과 소비자 민족주의로 용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주지하다시피, 80년대 말이래 점진적 금융자유화와 국내 거품경기는 한국 기업들의 무분별한 해외차입을 부추겨 1997년 외환위기에 이르게 만들었다. 한국정부는 당면하고 있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자본을 끌어 들어야 했고, 외국인직접투자는 한국경제에 대한 국제신인도를 가늠하는 잣대로 인식되어 외자유치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한국정부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장점은 다음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외자유치가 외환보유고 부족 상태에서 절대적이며,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유입되는 투기성 핫머니보다 안정적이므로, 바람직한 투자방식으로 궁극적으로 외환위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다. 둘째는 과잉설비투자와 방만한 해외차입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 대기업들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선진경영을 전수시키고 국내시장에 경쟁촉진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한국정부는 국내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기업들의 인수합병이나 국내 기업과의 합자를 크게 장려하기에 이르렀으며, 지난 4월 23일 프랑스 르노에게 삼성자동차를 매각한 것은 좋은 예이다.

이러한 외자기여론을 배경으로 한국정부는 1998년에 집중적인 자유화 조치들을 취했다. 첫째,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개방하였다. 4월과 5월에 걸쳐 18개 업종이 전면 개방되었으며, 담배제품제조업, 도박장운영업, 선물거래업 3개

업종에 대해서는 부분개방이, 발전업과 신탁회사, 신문발행업, 유무선 전화업, 전기통신업 등 9개 업종에 대해서는 개방범위가 확대되는 조치가 취해졌다.

둘째, 주식, 채권시장으로의 외자유입을 위해 98년 5월에 외국인주식투자의 한도를 철폐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수개월 이후인 1997년 12월에 취해졌던 '3년 이상 현금차관 등 민간기업의 해외차입에 대한 제한의 철폐'와 '모든 장단기 국공채,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 폐지'에 이은 조치이다.

셋째, 역시 98년 5월에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를 전면 허용하였다. 외국자본이 국내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시 이사회 동의의 전제로 한 '우호적 M&A'는 97년 12월 말부터 허용하였으나 주식을 33.3% 이상 취득할 시 해당기업 이사회 동의의 받도록 하여 '적대적 M&A'는 금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이사회 동의 없이도 주식의 전량취득이 가능해진 것이다.

넷째, 98년 6월에는 2단계 외환규제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거래 자유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4월 1일부터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외 영업활동과 관련한 외환규제가 철폐되었고, 개인의 자본거래를 포함한 나머지 외환규제는 2000년 말에 철폐된다. 외국환거래 자유화 방안은 외국환관리법을 '원칙허용, 예외금지'로 법령을 선진국화하고, 이전의 총량위주 사전규제에서 외환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위주의 사후관리 체제로의 개편을 의미한다.

다섯째, 또한 98년 7월에 외국인토지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이 한국내 토지물업무용이나 비업무용 구분없이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토지취득 절차도 신고제로 전환하였으며, 특히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할 경우에는 국내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를 3-5년내 처분토록 하던 조항을 폐지하여 외국기업 명의로 토지를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한국정부는 이상의 규제완화 조치들에서 나아가 외자유치를 위해 98년 7월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11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외국인투자체도를 수요자인 외국투자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법체계를 '규제·관리' 위주에서 '촉진·지원'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소화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첨단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강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급 도입 등의 투자유인제도를 확충하였다.

1999년도에 외국인투자가 증대한 것은 바로 이상의 일련의 투자환경 개선 조치들에 대한 반응으로 여겨진다. 일본의 대한투자에 있어 또 한가지 중요한 계기가 될 요인은 양국 정부가 협상중인 한일투자협정이다. 빠른 장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한일투자협정이 체결되면 대한 일본 투자자들의 보호와 아울러 국내시장 접근도 상대적으로 용이해 질 것이므로 일본의 대한투자는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

IV. 결 론

외환위기를 맞은 다음 해인 1998년도에 세계 다른 나라들과 일본의 대아시아 투자는 감소하였다. 일본의 대아시아 투자는 외환위기로 특히 위축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는 외국인직접투자 축소를 가져오지 않았다. 1998년의 대대적인 투자환경 개선에 힘입어 1999년도의 세계의 대한투자는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일본의 대한투자는 최근 급증하고 있어,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의 일본의 직접투자가 여전히 감소세인 것과 대조가 된다.

페트리(Petri)⁹⁾는 아시아 외환위기가 이 지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다음 5가지로 말하였다. 첫째, 급격한 환율절하는 이들 지역의 임금을 낮추어 생산비용을 더욱 절감시킴으로써 수출시장을 겨냥한 제조업체들의 대아시아 투자는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 국가들의 국내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음으로써 소비시장으로서 아시아를 겨냥한 외국인투자는 손해를 볼 것이다. 셋째, IMF관리하에 도입된 정책들은 이들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지배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만듦으로써 이들 현지시장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넷째, 아시아 외환위기는 역내 주요 투자국인 일본과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를 위축시켜 외자유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다섯째, 투자위험에 대한 인식이 증대하면서 아시아 지역으로의 투자 위험도가 증가할 것이다.

이상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들이 어떻게 상쇄될지를 알기 위해서는 향후 수년간의 외국인투자 유형을 관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시아 지역에 투자공급자인 일본과 한국을 볼 때, 환란이후 일본은 물론, 특히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한국은 외환위기로 큰 충격을 받은 상황으로 한국의 대아시아 투자가 다시 활성화되기까지는 한동안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국내경기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전망이라는 두가지 변수에 따라 대아시아 투자가 달라질 것이다. 일본 국내경제의 장기침체 요인은 90년대를 통하여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므로, 향후 경기가 더욱 나빠지지 않는 한 일본의 대아시아 투자는 재개될 것이다. 특히 일본의 제조업 부문의 산업구조 조정은 지속될 것이므로, 일본 생산체제의 분업화 추세로 인한 일본의 대아시아 투자는 계속될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국내시장 침체는 주로 소비시장을 겨냥한 서비스업 투자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임금하락으로 인한 제3국 수출 비중이 큰 제조업 투자에 있어서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환란이후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일본을 비롯한 세계의 대아시아 투자는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환란국가들

9) Krenin. 1999. p. 392에서 재인용.

의 적극적 투자환경 개선 노력은 분명히 장기적인 외국인직접투자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외국자본에 수세적이었던 한국의 변신은 대한투자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게 있어 주요 투자국이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의 대한투자가 증대될 가능성은 오히려 외환위기 이후 더 커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한국의 외자유치정책이 수세적인 자세에서 적극적 유치 쪽으로 변화되면서,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투자협정이 체결될 경우, 일본의 대한투자는 더욱 활기찬 모멘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일경제협력 사안들 가운데 양국간 수평적 분업구조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논의와 아울러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하여 기술우위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일본은 한국을 장래의 경쟁자로서 견제하기보다는 양국 제조업의 과잉생산능력을 해결해 가는 방향에서 양국의 상호투자에 있어 협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김준동. 1999. 「외국인직접투자의 촉진 및 해외직접투자의 효율화」. KIEP세계경제. 1월호: 30-38.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 외국인투자」. 자료논문: 98-13.
- 박영호. 1999. 「국제 직접투자의 세계적 흐름과 의의」. KIEP세계경제. 11월호: 71-83.
- 배상근. 1999. 「90년대 외국인투자의 추세와 시사점」. KIET 산업경제. 8월호: 62-72.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동향』. 매월 발행.
- 이성봉. 2000. 「2000년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정책방향」. KIEP세계경제. 1월호: 22-30.
- 이숙종. 1997. 「일본과 동아시아 경제협력」. 『동아시아협력의 정치경제』. 세종연구소.
- 외교통상부. 『2000년 외국인투자 동향』. 1월, 2월, 3월, 4월 참조.
- 재정경제부. 『국제투자 및 기술도입 동향』
- 通商産業省. 1999. 『第28回 海外事業活動動向調査』. 5月.
- Korea Investment Service (www.kisc.org) 및 재정경제부(www.mofe.go.kr) 인터넷 자료.
<http://www.mofe.go.kr/mofe/kor/econo-issues/cooperation/html/co2000011002.htm>
- JETRO. *Japanese White Paper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2000*
- Mordechai E. Krenin et als. 1999. "Motives for Japanese FDI: Survey, analysis, and implications in light of the Asian crisis." *Journal of Asian Economics*. 10. pp. 385-394.

Recent Trend of Jap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Korea

Sook-Jong Lee

The Sejong Institute

Recent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to Korea has been increasing rapidly despite of the serious economic setback caused by the 1997 foreign currency crisis. This trend is a direct response to the fast economic recovery of Korean economy and the amelioration of investment environment as a result of various deregulation measures taken in 1998. Recent rise of the Japanese FDI into Korea is particularly noteworthy, and it is quite contrasting to the still stagnated Japanese FDI into the other East Asian countries which experienced currency crisis.

Japanese FDI into Korea for the past two years is fastly growing especially in the manufacturing sectors such as chemicals, electric/electronic industry, machinery, and metal industry. This phenomenon can be transitional as Japanese companies rush to buy Korean companies of which assets became cheaper after the financial crisis. Japanese FDI into Korea is likely to continue, however, since Korea is attractive to invest as a final consumer market as well as a place to produce intermediate goods for Japanese producers. Japanese manufacturing companies have an incentive to move their redundant production facilities to Korea since Korea's level of technology is more compatible to that of Japanese than other South East Asian countries to pursue their horizontal division of labor strategy.

이숙중.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우체국 사서함 45호.

TEL. (031)750-7500. E-mail. skjlee@sejong.org.